

# 고령화미래 사회통합방안으로서의 기존 주거지역내 노인공동사용주택에 대한 태도연구

## The responses on elderly shared group house as a socially integrated housing alternative in aging society

이정화\*      이연숙\*\*      이수진\*\*\*  
Lee, Junghwa      Lee, Yeunsook      Lee, Soojin

### Abstract

While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gration has been mainly emphasized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disabled and lower income citizens, many types of elderly housing had been developed in a way of segregating the elderly from society rather than integrating. Meanwhile, shared group house may allow older people to 'age in place' within the communities where they used to live by providing them with social, economic and practical benef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empirical research on responses to elderly shared group house. Interview survey with questionnaire was conducted among 138 elderly people between 60-75 years old, living in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 Responses of the elderly included awareness, perception and preference. It was revealed that the respondents had negative perceptions on existing shared group house in Korea. Most of the respondents showed preference to moving into socially-integrated type of shared group houses developed within their communities. This study indicated the potential of such type shared group house to become a favorable housing alternative for elderly people which supports their sustainable independent living within community.

Keyword : Sustainability, Aging in Place, Social integration, Elderly shared group hous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외적으로 고령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전 세계 유례없이 초고속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속도에 비해 노인 주거환경 분야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노인주택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이연숙 외 4인, 2007b), 그동안의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과 상황의 노인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노인주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노인 주거환경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는 최근의 개념으로 노인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하는 'Aging In Place'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노인들은 자신이 중년기를 보냈던 주택이나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sup>1)</sup> 따라서 주택과 지역사회가 노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계획된다면, 노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은 주로 노인, 장애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강조되어 온 반면(Huber, 2003), 지금까지의 노인주거계획은 지역사회 통합보다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노인의 주거지를 격리시키는 사례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초기의 지속가능한 생태학적 도시환경의 요건은 자연보존적, 환경친화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데서 출발하였으나, 그 이후 사회의 경제적, 인구학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과 거주민과 시민의 삶을 생기기게 만들으로써 물리적 환경의 사용가치를 높이는 보다 균형잡힌 포괄적

1) 미국의 경우 2003년 AARP의 조사에 따르면 82%의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주거이동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자료(통계청, 2002)에서도 60-64세의 84.8%, 65-69세의 80.7%, 70-79세의 70.5%가 자기 집에서 살고 싶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junghwalee@yonsei.ac.kr)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BK 21 교수

개념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Lawrence, 2000). 이 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 미래사회 노인의 지속가능한 삶은 단순히 건축물의 물리적 생애주기를 연장시키는 환경적 지원성 뿐만 아니라, 주거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공동체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더구나 노인주택은 그 거주자가 노인이라는 관점 외에도 상당한 비율의 노인들이 실제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노인주거의 모델로서 공동사용주택(shared housing)을 들 수 있다. 공동사용주택은 어떤 지역에서나 가능하나 초창기 선진국에서 개발되었던 노인촌처럼 기존 지역사회에서 분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거지역내에 소규모로 집과 같은 친밀한 개념으로 계획되는 특성이 있어, 보다 지역사회 통합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저하되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실용적 측면의 혜택을 제공함(Franck, 1989)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주거유형으로, 주거 공동체의 다양성을 확대시켜 줄 뿐 아니라 노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동사용주택은 1960년까지 사회적 관심을 얻지 못했지만, 1980년대부터 사회적 관심과 수용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며(Golant,1992), Harvard Joint Center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의 10%가 공동사용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Schafer,2000). 국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용 그룹홈은 이러한 공동사용주택의 한 유형이며, 건강한 노인이 아니라 의료·간호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노인들의 편중시설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공동사용주택은 보다 다양한 형태와 유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과 앞으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될 노인들을 보다 원활하게 사회통합 시킬 수 있는 방안인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노인의 태도를 인지도, 선호, 인식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선호하는 입지적 특성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고령화미래를 위한 사회통합형 주거대안의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현재 60-75세 사이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 거주 노인들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60세 이상 노인들을 수용대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상선정을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7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과 5월 14일부터 5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관에서 1:1 면접에 의해 이루어졌다.

표 1. 국내외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설명

구별	설명
국내 형태	· 주택을 소규모의 노인들끼리 거주하며 공유하는 형태 · 각각 개인영역(침실)을 가지고, 그 외의 다른 공간(부엌, 식당, 거실 등)을 공유 · 대부분 단독주택 형태
공동사용주택 서비스	· 가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이 입주비에 포함되어거나 봉사자들에 의해 무료로 제공
대상	· 연고지가 없고, 몸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2) 운영/제공	· 정부가 무료/실비로 제공 · 운영주체가 관리
입주자	· 다양한 공동입주자 (친구들이나 이웃, 친척, 불특정 다수)
국외 형태	· 입주자는 각각 개인영역(침실)을 가지고, 그 외의 공간(부엌, 식당, 거실 등)공유 ·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형태에서 연립주택, 아파트 일부 층까지 다양한 형태
공동사용주택 서비스	· 가사 서비스 제공 · 의료서비스나 여가서비스와 같은 별도의 전문서비스 제공 가능 · 입주자끼리 서로 가사 서비스 등을 공동 부담가능하거나 필요시도우미등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가능
3) 대상	· 다양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수준의 노인들이 모두 수용대상
입주자	· 다양한 공동입주자 (친구들이나 이웃, 친척, 불특정 다수)
운영/제공	· 대략 6-8명의 노인들이 공동거주 · 입주노인들의 공동 책임으로 운영주체와 서로 합의하여 주택 운영가능 · 운영주체 아닌 입주자들만으로 관리 가능 · 공동사용주택은 입주 계획부터, 심지어는 주택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입주노인들의 결정에 따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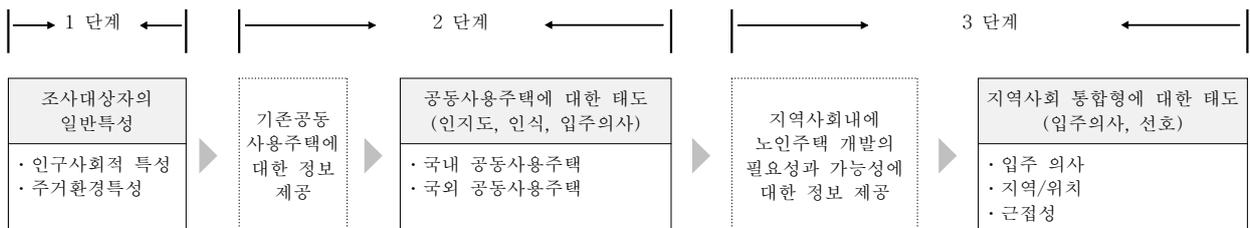


그림 1. 설문지 구성 및 조사내용

2) 보건복지부 자료와 김현진(2006)논문 내용을 정리함  
3) National shared housing resource center

설문지는 세 단계 과정에 의해 응답 진행되도록 구성하였다. 공동사용주택은 그 다양한 가능성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한 그중 한 사례인 노인 그룹홈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어서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이해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럴 경우 워크샵 교육 효과가 있어 연구결과를 유도하지 않기 위해 세단계로 그 질문 순서를 통제하며 각 단계별 순수 응답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응답자를 1대 1로 조사하였으나 그 단계적 흐름은 김미선(2007)에서 사용된 소그룹 워크샵 진행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 1단계는, 조사대상자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환경 특성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제 2단계에서는 국내외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이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지도, 입주의사,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국내외 공동사용주택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표 1과 같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통합형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이상적인 디자인 사례로 노인용 서비스 주택<sup>4)</sup>을 제시하면서 그 개발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이어서 이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입주의사와 입지특성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 및 조사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 Win 12.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chi^2$  검증, t-검증, F-검증과 Duncan의 다원구획 검증방법( $p < 0.05$ )을 사용하였다.

## 2. 문헌고찰

### 2.1 Aging In Place

노년학 사전(dictionary of gerontology)에서는 Aging in place를 "the effect of time on a non-mobile population; remaining in the same residence where one has spent his or her earlier years", 즉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이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재인용, Harris, 1988). 한편, Calkins(1995)는 주택 자체가 노화를 완전히 지원해줄 수 없다는 현실성을 반영하여, aging in place라는 개념을 4가지로 해석하였다. 즉, 첫 번째는 사전적인 의미로 같은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노화를 지원해줄 수 있는 노인계획주택으로 한번 이주하여 그곳에서 계속 살게 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하나의 건물 내에서 노후의 상황별 서비스 제공에 맞춰 층을 바꾸어가는 거주방식이다. 마지막으로 aging in place의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같은 주거단지 내에서 이동하며 거주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CCRC와 같은 지속적 케어의 주거형태가 그 예이다. Lawton(1990)은 종래의 aging in place 개념이 노인의 상황별 변화만을 고려하였으며, 환경적 변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aging in place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주택과 거주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른 사용자의 심리적 변화, 사용행태의 변화 뿐 아니라, 물리적 환경의 노화로 인한 시설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인을 위한 환경은 노후 신체적 변화를 지원함은 물론, 사적, 자극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Houben(2001)은 'aging in place'를 위해서는 특별히 노인을 위한 시설 뿐 아니라 일반적인 주거에서의 기능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기능적인 부엌과 욕실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겪게 되는 이동 장애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노인의 독립적인 삶의 공간을 연장시켜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ging in place'는 노화와정을 고려하면서 주거의 기능성을 높여 노인으로 하여금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자녀와 가족들에게서, 건강한 사람들과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지역사회 통합 모드로 기능적 주거환경이 조성될 때, 노인들은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교류하고, 익숙한 지역에서 정주하며, 또한 주거소유에 대한 긍지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 경우 노인시설 거주자보다 2-3년 더 오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다(Pratt, 1998<sup>5)</sup>).

'Aging in Place'는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의 인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노인복지 방향이다(이연숙, 2003). 이미 국외의 나라들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가 경제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최고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주거지역에서 노화가 진전되어도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으로는 부동산 활용 프로그램(Equity Release Program), 주택 추가 설치 프로그램(Echo Housing, Granny Flats), 역내 비상 연락체계(community Alarm Systems), 주택관리 및 수선 프로그램(Care and Repair Programs)과 계획주거 제공 프로그램(Amenity Housing)등이 있다<sup>6)</sup>.

### 2.2 고령화 미래와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정의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전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집단을 사회의 주류에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이들에게도 주류집단의 기회와 권

4) 이연숙 외(2006). 노인생활지원주택. 이연숙, 이성미(편집). (2006), 고령화사회 혁신디자인. 디자인네트. pp.122-123.

5) Frank (2002)에서 재인용. p.143

6) 이연숙(2003)한국인의 삶과 미래주택. 연세대학교 출판부

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Wikipedia,2007), 그 외의 몇몇 개념 정의를 살펴 보면, 다음의 표 2 과 같다.

표 2.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연구자	개념 정의
Moen(1989)	· 집단의 다양한 국면에 개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 · 친구나 친척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와 고용, 클럽, 기타 조직과 같은 공식적 사회적 관계로 구분
Zunzunegui 외 3인 (2003)	· 친밀한 사이에서부터 보다 확대된 범위에 이르기까지 관계되는 것
Ware 외 4인(2007)	·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개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나가고 훈련해 나가는 과정

국외의 경우, 노인의 사회적 통합은 이미 여러 국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노인의 삶의 질, 특히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Vardy, 1984),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되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ringle, 1978).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높은 사회적 교류와 참여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hael et al, 2001; Zunzunegui et al, 2003). 이 밖에도 사회적 통합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독립적인 노인의 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Kasper & Pearson, 1995; Steinbach, 1992; Davis et al, 1997) 주장된 바 있다.

한편, 한국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노인이 다양한 세대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고 교류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연숙, 1993; 전명숙 외, 1995; 박근형 외 1996; 지은영 외, 1997), 다음 몇몇 사례에서는 이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적 주거모형을 다루어 왔다.

이연숙(1993)은 한국의 주거문화모델<sup>7)</sup>로 지역사회 내에 노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삼대가족 주택을 우리나라가 발전시켜야할 노인주택의 주요모델이자 일반주거문화 모델로 제시한 바 있는데<sup>8)</sup>, 이는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가족부양 우선주의가 당연시되고 노부모 부양을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사회의 가치관에 적합한 현대적 주거 모델로 개발한 것이다. 이후 이연숙(2003)은 3대가족 주택을 보다 발전시켜 건강주택을 제안한 바 있는데<sup>9)</sup>, 거주자의 생애를 모두 지원해줄 수 있는 생애주택의 개념과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의 건강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주거 모델이다.

한편, 박근형, 양우형(1996)은 3대가 단위주택을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고 단지 차원에서 젊은 세대와 함께 혼합 배치하여 세대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지역사회 통합형 모형을 연구한 바 있으며, 최근 이연숙(2006)은 기존 주거 단지가 자연스럽게 고령친화 커뮤니티로 변화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주택에 고령자 케어가 가능한 주거를 자연스럽게 삽입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일반주택에서 거주하던 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가족이나 이웃에 근접해서 거주할 수 있게 하며 노인을 고립시키지 않고 지역사회로 통합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sup>10)</sup>.

### 2.3 공동사용주택

Golant(1992)는 노인이 노화를 겪게 되면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이유로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사노동을 하기 어려운 신체적 노화를 들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주택이나 시설로 이주하는 것 이외에 이미 공동사용주택(shared housing)이 노인의 주거선택 대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공동사용주택은 노인이 가족이외의 타인과 주택을 공유하는 것으로, 두 명 이상의 비혈연 노인들이 주택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침실과 개인욕실과 같은 개인공간을 소유하면서 부엌과 거실, 식당과 같은 공용공간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형태이다. 이들은 서로 주택을 공유하게 되면서 가사노동이나 생활비등을 나누어 생활하게 된다 (National Shared Housing Resources Center, 2007). 이와 같이 노인이 타인과 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노인인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에게, 또한 넓게는 사회 전반에서 경제적, 실질적, 사회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Franck, 1989; Golant, 1992).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대표적인 주거유형은 그룹홈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최정신 외 3인, 2000; 김

7) 1990년 문화부의 문화정책과제 「한국형 주거문화 모델개발 방안연구」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삼대가족 아파트」란 현재 살고있는 혈연 삼대가족의 생활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단위주거 커뮤니티시설의 복합체로 제시되었으며, 이것이 노인 뿐 아닌 일반 다양한 연령세대들이 거주하는 모형으로 자연적 확산되는 것을 예상하고 제시한 것이 있다. 여기서 주거유형은 동거, 인거, 근거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국내 처음으로 복합 커뮤니티 지원시설을 패키지로 제시하였다.  
8) 이연숙, 신화경 외. 실증적 관점에서 본 삼대가족 아파트 개

발의 타당성“. 한국주거학회지. 1992  
9) 이연숙 (2005). 한국의 미래주택 「Total Wellbeing House」. 오고있는 미래 반응하는 세계주택.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302-313.  
본 주택은 미래형주거로써 (주)대우건설의 미래주택으로 실제 건설 중이며 2007년 말에 개발예정이다.  
10) 이연숙 외(2006). 노인생활지원주택. 이연숙, 이성미 기획편집(2006), 고령화사회 혁신디자인. 서울 : 디자인네트. pp.122-123.

대년 외 2인, 2001)들에서 치매노인의 치유를 위한 적합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은 연고지가 없는 저소득층 노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동사용 주택은 치매 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경제적 조건의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연숙 외 (2007)는 이러한 가능성을 쉽게 보여주기 위해 노인주택 유형화를 시도한바 있다. 여기서는 aging in place 개념의 확산으로 노인의 신체적 의존도와 주택유형과의 관련성이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노인의 신체 자립도에 의한 주택 분류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았다. 즉, 다양한 주거환경 내에 각기 다른 의존상태의 노인이 생활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면, 노인의 신체단계에 따른 구분보다는 주거환경적 계획 요소에 따른 분류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 3. 결 과

####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 3.1.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남성이 46.4%, 여성이 53.6%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60-64세가 20.3%, 65-69세가 39.1%, 70-75세가 40.6% 로 평균나이는 68.1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 미만이 13%, 중졸이 18.1%, 고졸이 49.3%, 대졸 이상이 19.6% 로 현재 65세 이상 전체 한국 노인의 18.3%가 고졸 이상(통계청, 2005)인 것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높은 학력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결혼 상태를 보면, 조사대상자 중 73.2%가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6.8%가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58%가 현재 자녀와 살고 있지 않으며 48%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8%가 혼인한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계수입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수준<sup>11)</sup>을 알아본 결과 23.9%가 저소득층이며, 67.4%가 중산층이고, 8.7%가 고소득층으로 조사되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69.6%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18.1%, 아주건강하다는 8%, 건강하지 않다는 3.6%, 아주 건강하지 않다는 0.7%로 조사되었다. 즉, 본 조사대상자의 77.6%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통계청(2006)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 중산층은 100-400만원 미만, 고소득층은 월평균 4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 3.1.2 주거환경 특성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 특성을 조사한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으로는 고층 아파트(40.6%)가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22.5%), 연립주택이나 빌라(18.8%),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14.5%), 저층 아파트(2.9%), 기타(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자가 소유(83.3%)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세는 12.3%, 월세는 4.4%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로는 53.7%가 소형(25평 이하)주택에, 37%가 중형(26-35평) 주택에, 26%가 대형(36평 이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1-3년 사이는 15.9%, 4-7년 사이는 26.1%, 8-11년 사이는 20.3%, 12-15년 사이는 10.1%, 16-19년 사이는 5.1%, 20-29년 사이가 13.8%, 30년 이상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는 8.7%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 거주년도는 11.96년으로 조사되었다.

##### 3.1.3 사회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 3), 문화활동(81.2%)과 스포츠활동(61%), 종교활동(63%)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대상자가 대부분으로, 참여정도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교류는 이웃(3.75)과 친구(3.32)의 경우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3. 사회활동과 교류 n=138

	f	%	M	SD
<b>사회활동 유형*</b>				
· 문화 활동	112	81.2	2.44	0.58
· 스포츠 활동	98	71.0	2.21	0.60
· 종교활동	87	63.0	2.11	0.64
· 봉사활동	36	26.1	1.75	0.77
· 여가활동	54	39.1	2.02	0.67
TOTAL / Average	138	100.0	2.11	0.65
<b>사회적 교류 유형**</b>				
· 이웃과의 교류	138	100.0	3.75	0.99
· 형제/자매와의 교류	138	100.0	2.49	1.03
· 친구와의 교류	138	100.0	3.32	1.00
TOTAL / Average	138	100.0	3.19	1.00

\* 3점 척도 사용(3점이 가장 높음을 나타냄)

\*\* 5점 척도 사용 (5점이 가장 높음을 나타냄)

### 3.2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태도

#### 3.2.1 공동사용주택의 인지도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모르고 있는(75.4%) 것으로 나타났다. 즉, 24.6%의 소수만이 공동사용주택에 대해서 알고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3.2.2 공동사용주택의 대한 인식

#### 1) 국내의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전반적 인식

국내의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였다. 즉, 현재 국내 공동사용주택의 법적 대상과 기준에 대한 정보와, 국외 공동사용주택의 다양한 형태와 서비스, 공동거주자와 운영방식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들 정보를 제공한 후, 공동사용주택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인 문구를 제시한 후, 응답자들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국내의 공동사용주택에 대해 각각 같은 문구를 제시하였으나, 운영주체의 부재에 대한 인식 조사는 국내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국외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조사에만 제공되었다.

조사결과(표 4),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국내의 경우(3.31)와 국외의 경우(3.67)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높은 것(3.66)으로 나타났으며, 국외의 공동사용주택의 경우는 낮은 것(2.98)으로 나타났다.

표 4. 국내의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인식 n= 138

	국내 공동 사용주택		국외 공동 사용주택	
	M	SD	M	SD
<b>긍정적 인식</b>				
· 경제적인 부담이 적을 것 같다	3.61	0.82	4.35	0.64
· 노인들 끼리 서로 의지하여 외 롭지 않을 것 같다	3.35	0.78	3.93	0.57
· 자녀에게 신세지지 않아도 되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3.20	0.73	3.62	0.70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게 되어 생활이 편리할 것 같다	3.07	0.68	3.39	0.71
· 운영주체가 없으면 결정권이 있 기 때문에 집과 같이 편안할 것 이다	-	-	3.03	0.85
평균	3.31	0.75	3.67	0.69
<b>부정적 인식</b>				
· 집단 수용소 같다	4.16	0.78	2.69	0.60
· 자녀들의 체면이 구겨질 것이다	3.20	0.95	2.59	0.60
· 사생활 보장이 안 될 것 같다	3.65	0.93	3.28	0.60
· 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다	3.72	0.86	2.67	0.50
· 자녀와 같이 못살게 되어 싫다	3.17	0.86	2.78	0.65
· 입주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불편할 것 같다	4.05	0.70	3.70	0.72
· 운영주체가 없으면 불편하기도 하며, 운영의 책임이 부담스러 울 것이다	-	-	3.17	0.78
평균	3.66	0.85	2.98	1.29

\* 5점 척도 사용 (5점이 가장 높음을 나타냄)

긍정적인 평가 내용을 보면, 국내의 공동사용주택 모두 ‘경제적인 부담이 적을 것 같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노인들 끼리 서로 의지하여 외롭지 않을 것 같다’와 ‘자녀에게 신세지지 않아도 되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인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평가 내용을 보면, 국내의 공동사용주택에 대해서는 ‘집단 수용소 같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며, ‘입주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불편할 것 같다’, ‘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다’, ‘사생활 보장이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국외의 공동사용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불편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생활 보장이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 인식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의 질 보다는 공동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측면을 보다 우려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국외보다 집단수용소 같은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2) 거주자 특성에 따른 국내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인식차이

국내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변인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성별(t:-3.495)에 따른 차이를 보면 p<0.001 수준에서, 여성(3.55)이 남성(3.11)보다 ‘노인들 끼리 서로 의지하여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중년의 여성들이 노후에 같은 동년배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를 선호하는 기존의 연구결과 (지은영, 고정자, 1997; 이연숙 외 4인, 2007b)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조사대상자의 경우(3.70)가 동거하는 경우(3.22)보다 이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조사대상자의 학력 수준별 결과를 보면, p<0.05 수준에서, 중졸학력 집단이 ‘사생활 보장이 안 될 것 같다(F:2.770)’, ‘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다(F:5.593)’와 ‘입주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불편할 것 같다(F:3.952)’, ‘자녀들의 체면이 구겨질 것이다(F:7.351)’와 ‘자녀와 같이 못살게 되어 싫다(F:6.353)’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장 높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결과로 집단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표 5와 같다.

표 5. 학력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와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결과

	n= 138							
	중졸미만		중졸		고졸		대졸 이상	
	M	SD	M	SD	M	SD	M	SD
<b>부정적 인식</b>								
자녀의 체면 저하	2.61	0.70	3.64	0.95	3.35	0.89	2.78	0.93
	A		B		A. B		A. B	
사회적 보장 부족	3.50	0.71	4.12	0.97	3.56	0.90	3.56	0.93
	A		B		A		A	
사회적 이미지 저조	3.39	0.78	4.28	0.74	3.73	0.89	3.37	1.04
	A		B		A. B		A	
자녀와의 별거 거부	2.61	0.78	3.48	0.87	3.34	0.78	2.85	0.86
	A		C		B		B	
입주자간의 불화	3.72	0.75	4.40	0.65	4.06	0.67	3.93	0.68
	A		B		A. B		A. B	

(3)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국내 공동사용주택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6), 중산층의 경우 ‘사생활 보장이 안 될 것 같다(F:3.245, p<0.05)’와 ‘자녀와 같이 못살게 되어 싫다(F:3.557, p<0.05)’는 측면의 부정적인 인식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 n= 138

	n= 138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M	SD	M	SD	M	SD
<b>부정적 인식</b>						
사생활 보장 부족	3.30	1.10	3.76	0.81	3.75	0.97
자녀와 별거의 거부	2.85	0.80	3.30	0.82	3.08	1.16

(4)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인식 차이

조사대상자의 현재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인 항목을 보면(표 7)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결과, 자가 소유자의 경우에 ‘자녀에게 신세지지 않아도 되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경제적 자립 상태는 이후의 삶에서도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생활 보장이 안 될 것 같다’, ‘입주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불편할 것 같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월세 소유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소유 집단의 경우 66.7%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다른 주거형태보다 이웃과의 밀접한 교류나 생활이 익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 현재 주택 소유형태에 따른 인식 차이와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결과

	n= 138					
	자가 소유		전세 소유		월세 소유	
	M	SD	M	SD	M	SD
<b>긍정적 인식</b>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해방	3.26	0.69	2.94	0.90	2.67	0.82
	B		A. B		A	
<b>부정적 인식</b>						
사생활보장 부족	3.77	0.83	3.12	1.11	3.17	1.33
입주자간의 불화	4.05	0.66	4.29	0.69	3.33	1.03
	B		B		A	

(5) 주택 크기에 따른 인식 차이

조사대상자의 현재 주택 규모에 따라 ‘집단 수용소 같다’는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2.012, p<0.05).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결과, 1-5평 거주 집단과 16-40평 거주 집단이 서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현재 36-40평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공동사용주택에 대해 ‘집단 수용소 같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4.38), 반대로 1-5평 규모의 소형주택 거주자는 이 항목에 대해 부정적 경우 하나의 주택을 부분 사용하여 현재 공동으로 생활 인식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의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주거규모가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주거규범에도 작용하여 규모에 대한 기대와 평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현재 주택 소유크기에 따른 인식 차이와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결과

	n= 138		
	· 부정적 인식: 집단 수용소 이미지		
	M	SD	Duncan's
1-5평	3.33	1.15	A
6-10평	4.00	0.76	A. B
11-15평	3.66	1.03	A. B
16-20평	4.75	0.45	B
21-25평	4.18	0.80	B
26-30평	4.25	0.72	B
31-35평	4.16	0.69	B
36-40평	4.38	0.74	B
41평 이상	4.00	0.82	A. B

(6) 거주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사생활 보장이 안 될 것 같다’로(F:2.396, p<0.05), Duncan의 다원구획검증결과, 현 주택에서 오래 거주한 경우 (20-29년)에 거주기간이 짧은 1-3년, 16-19년 거주자 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표 9). 특히, 사생활 보장이 비교적 높은 주택 형태인 단독주택 거주자일수록 현 주택에서 오래 거주한 조사결과<sup>12)</sup>를 보았을 때, 현재의 생활방식이 공동사용주택의 주거규범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현재 주택 거주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와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결과 n= 138

	· 부정적 인식: 사생활 보장부족		
	M	SD	Duncan's
1-3 년	3.27	0.94	A
4-7 년	3.44	0.88	A. B
8-11 년	3.89	0.99	A. B
12-15 년	3.93	0.92	A. B
16-19 년	3.29	0.76	A
20-29 년	4.05	0.85	B
30년 이상	3.67	0.65	A. B

2) 거주자 특성에 따른 국외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인식 차이  
국외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변인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집단 수용소 같다’로 (t:-2.608, p<0.01), 여성(2.81)이 남성(2.55)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공동사용주택 운영주체의 유무에 대한 것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운영주체가 없으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집과 같이 편안할 것’이라고 (F:5.963, p<0.005)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결과, 60-64세 집단과 70-75세 집단이 서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0-64세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운영주체가 없으면 불편하기도 하며, 운영의 책임이 부담스러울 것(F:3.293, p<0.05)’이라는 의식이 높은 것(3.46)으로 나타났으며, 70-75세 집단과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표 10). 이는 젊은 노인의 경우,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관리가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의 조건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고령 노인들은 운영주체의 관리가 생활에 대한 구속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12)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 거주자의 54.8%가 20년 이상 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표 10.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와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결과 n= 138

	60-64세		65-69세		70-75세	
	M	SD	M	SD	M	SD
<b>긍정적 인식</b>						
운영주체 부제로 인한 자율성	2.75	0.54	2.89	0.64	3.32	0.52
	A		A. B		B	
<b>부정적 인식</b>						
운영주체 부제로 인한 부담감	3.46	0.69	3.19	0.75	3.00	0.85
	B		A. B		A	

(3)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

‘자녀와 같이 못살게 되어 싫다’는 항목에 있어서 학력간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F:4.329, p<0.01), 중졸집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한편,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결과, ‘운영주체가 없으면 불편하기도 하며, 운영의 책임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항목에 대해서도 학력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F:3.521, p<0.05),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운영주체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수준이 증가되므로 (박희진외 2인, 2003) 많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있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결과와 유사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필요로하는 집단의 경우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식하는 반면, 불필요로 하는 집단은 구속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1. 학력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와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n= 138

	중졸미만		중졸		고졸		대졸 이상	
	M	SD	M	SD	M	SD	M	SD
<b>부정적 인식</b>								
자녀와 별거의 거부	2.61	0.78	3.48	0.87	3.34	0.78	2.85	0.86
운영주체 부제로 인한 부담감	3.00	0.91	3.00	0.76	3.10	0.78	3.59	0.69
	A		A		A		B	

(4)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

‘사생활 보장이 안 될 것 같다’는 항목에 대해 소득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F:8.345, p<0.000),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결과, 고소득 집단이 저소득층보다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사생활보장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이는 설계상 이들의 민감한 반응을 반영하여 공동사용주택의 장점을 통해 스트레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줄 필요가 있다.

표 12.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와 Duncan의 다원구획검증 n= 138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M	SD	M	SD	M	SD
<b>부정적 인식</b>						
사생활 보장 부족	2.94	0.70	3.35	0.524	3.58	0.51
	A		A. B		B	

### 3.2.3 공동사용주택 입주 의사

공동사용주택의 입주의사를 조사한 결과 국내 공동사용주택에 대해 입주의사가 있는(17.4%) 집단이 가장 적으며, 국외 공동사용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의사가 있다(48.6%)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공동사용주택 입주의사에 대해서는 없다(44.9%)는 반응이 높았으며, 이와는 반대로 국외 공동사용주택에 대해서는 없다(6.5%)는 반응은 낮았다. 한편,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앞서 국외 공동사용주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유관하다고 판단된다(표 13).

표 13. 국내의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입주의사 n= 138

	f		%	
	f	%	f	%
<b>현재 국내 운영 공동사용주택의 경우</b>				
· 입주 의사가 있다	24	17.4		
· 잘 모르겠다	52	37.7		
· 입주 의사가 없다	62	44.9		
Total	138	100.0		
<b>현재 국외 운영 공동사용주택의 경우</b>				
· 입주 의사가 있다	67	48.6		
· 잘 모르겠다	62	44.9		
· 입주 의사가 없다	9	6.5		
Total	138	100.0		

#### 1) 거주자 특성에 따른 국내 공동사용주택 입주 의사

조사대상자의 성별, 소득수준, 현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입주의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4).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54.7%)이 여성(36.5%)보다 높은 비율로 입주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여성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47.3%).

월별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는 중산층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입주의사(33.3%)를 보인 반면, 고소득층의 대부분은 입주의사가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66.7%). 이는 공동사용주택의 적은 경제적 부담이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보다는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가나 전세 입주자의 경우 입주의사가 없다는 비

율이 높은 반면 월세 입주자들은 높은 입주의사(66.7%)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소득에 따른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표 14. 국내 운영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입주의사 n= 138

	있다		잘모르겠다		없다		TOTAL	
	f	%	f	%	f	%	f	%
<b>성별</b>								
· 남성	12	18.8	17	26.6	35	54.7	64	100.0
· 여성	12	16.2	35	47.3	27	36.5	74	100.0
Total	24	17.4	52	37.7	62	44.9	138	100.0
	$\chi^2: 6.573, p<0.05$							
<b>월별 소득수준</b>								
· 저소득층	11	33.3	10	30.3	12	36.4	33	100.0
· 중산층	12	12.9	39	41.9	42	45.2	93	100.0
· 고소득층	1	8.3	3	25.0	8	66.7	12	100.0
Total	24	17.4	52	37.7	62	44.9	138	100.0
	$\chi^2: 9.703, p<0.05$							
<b>현 주택 소유형태</b>								
· 자가 소유	17	14.8	45	39.1	53	46.1	115	100.0
· 전세 소유	3	17.6	5	29.4	9	52.9	17	100.0
· 월세 소유	4	66.7	2	33.3	0	0.0	6	100.0
Total	24	17.4	52	37.7	62	44.9	138	100.0
	$\chi^2: 12.203, p<0.05$							

#### 2) 거주자 특성에 따른 국외 공동사용주택 입주 의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국외 운영 공동사용주택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조사대상자가 입주에 대한 높은 의사(60.6%)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표 15),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이 국내의 공동사용주택의 큰 장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포함하면 대부분이 긍정적 입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외 공동사용주택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성의 장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적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표 15. 국외 운영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입주의사 n= 138

	있다		잘모르겠다		없다		TOTAL	
	f	%	f	%	f	%	f	%
<b>월별 소득수준</b>								
· 저소득층	20	60.6	11	33.3	2	6.1	33	100.0
· 중산층	44	47.3	45	48.4	4	4.3	93	100.0
· 고소득층	3	25.0	6	50.0	3	25.0	12	100.0
Total	67	48.6	62	44.9	9	6.5	138	100.0
	$\chi^2: 9.703, p<0.05$							

### 3.3 지역사회통합형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태도

#### 3.3.1 입주 의사

실제로 디자인된 예제를 통해 지역사회통합형 공동사용주택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이러한 유형에 대한 입주의사를 조사하였다. 사례로 제시한 디자인 안은 앞의 국내의 공동사용주택과는 다르게 아파트 거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국내 추세에 맞추어 aging in place를 실현시키고자하는 의도로 지역사회

회통합형 공동사용주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인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산학 공동으로 개발되었다. 즉, 아파트의 한 층에 매입시켜 공동사용주택을 제공하여 단지내의 노인들이나 거주자의 노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대상이 되며 현 거주지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82.6%가 입주 의사를 밝혔고(표 16), 이는 앞서 보여준 국내의 기존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미온적 입장과는 괄목할만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노화에 대응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제공된다면 기존의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사회적, 심리적 연대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으며 고비용의 노인케어복지시설을 대신할 수 있어 경제적이므로 aging in place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동사용주택이 노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하나의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6. 지역사회 통합형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입주 의사 n= 138

	f	%
· 입주 의사가 있다	114	82.6
· 잘 모르겠다	19	13.8
· 입주 의사가 없다	5	3.6
Total	138	100.0

### 3.3.2 입지특성에 대한 선호

#### 1) 위치 및 지역

지역사회 통합형 공동사용주택의 선호하는 위치는(표 17) 도시근교(60.1%)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노후 주택의 지역적 선호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와(오찬욱 외, 1993; 이연숙 외 3인 1999; 신화경, 2003; 홍형욱 외 2인, 2004) 같은 결과이다. 그 이유로는 복잡한 도심으로부터 벗어나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접할 수 있고, 동시에 도심지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 지원과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오찬욱 외, 1993).

표 17. 입지 특성에 대한 선호 n= 138

	f	%
<b>위치</b>		
· 도심지역	23	16.7
· 도시근교	72	60.1
· 전원지	32	23.2
Total	138	100.0
<b>지역</b>		
· 일반 아파트 지역	57	41.3
· 일반 주거지역	59	42.8
· 노인촌	22	15.9
Total	138	100.0

한편, 노인을 분리 집합시키는 노인촌 보다는 일반아파

트 지역(41.2%)과 일반 주거지역(42.8%)에 개발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면서 통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p < 0.05$ 수준에서 성별간의 유의적 차이( $\chi^2: 6.946$ )가 있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일반 아파트 지역(48.6%)을,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일반 주거지역(54.7%)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비교적 아파트에 대한 높은 선호를 나타낸 선행연구 결과(박근형 외, 1996; 신영숙, 2004)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 2) 근접성

지역사회 통합형 공동사용주택의 선호되는 위치를 현재 거주지 및 자녀와의 거리를 통해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8).

조사대상자의 33.3%가 현재 거주하는 곳과 기혼자녀와의 거리가 모두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자녀와의 거리는 상관없지만 현재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경우도 22.5%로 나타나, 기존의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현재 거주지와는 상관없지만 기혼자녀와는 가까워야한다는 입장도 18.1%를 차지하여, 기혼자녀와 현재거주지 모두 가까워야한다는 입장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또한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근접성 n= 138

	f	%
·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하며 기혼자녀와의 거리는 상관없다.	31	22.5
· 현재 거주하는 곳과 기혼자녀와의 거리가 모두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	46	33.3
·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의 거리는 상관없지만 기혼자녀와의 거리는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	25	18.1
· 어디든 상관없다.	36	26.1
Total	138	100.0

### 4. 결론

본 연구는 고령화 미래사회의 자립적인 노인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적 노인주거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노인공동사용주택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한국노인들의 반응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공동사용주택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개발 방향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으로는 국내의 공동사용주택에 대한 태도를 인지도, 입주 선호, 긍정적, 부정적 인식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지역사회 통합형 공동사용주택의 예제를 통해 그 실현가능성과 이해를 하게 한 후, 이에 대한 입주선호, 그리고 선호하

는 지역, 위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노인공동사용주택이 경제적인 부담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 사회가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할 것을 감안한다면, 공동사용주택이 고령화 미래의 노인주거대안으로써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사용주택은 국외의 공동사용주택에 비해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공동사용주택이 집단사용소의 느낌을 준다는 것과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인 반면, 국외의 공동사용주택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수용된다는 느낌보다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대표적 주거모형인 아파트의 익명성에 익숙해져온 한국노인의 경우,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입주자사이의 불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과 물리적, 운영적 측면에서 공동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의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하도록 잘 디자인된 사회통합적 공동사용주택 모델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세대간의 교류가 가능한 통합형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떻게 계획 디자인되는지에 따라 이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도시 및 주택개발 분야에서 고령화 미래를 대비한 노인의 주거문제를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해왔으나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된 경우는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룬 공동사용주택은 노인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주거모델로서 'aging in place'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합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한국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다양한 유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미선, 이정화, 이연숙.(2007). 소집단 워크숍을 통한 국내 도심 거주노인들의 주거환경 선호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통권12호. pp. 311-318.
- 김대년, 권오정, 최정신.(2001). 중산층 이상 가족이 인식하는 치매노인 그룹홈의 장점과 국내 도입의 문제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9권 6호. pp. 113-128.
- 김현진.(2006). 생활환경학적 관점에서 본 자립형 고령자 그룹홈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근형, 양우현.(1996). 노인을 위한 도시공동주택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2권 1호. pp. 13-21.
- 박희진, 양세화, 오찬욱.(2003).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6호. pp. 44-51.
- 신영숙. 2004. 중년층과 노년층의 노인시설주거 선택 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5권 2호. pp. 43-54.
- 오찬욱, 이연숙.(1993). 노년기의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9권 2호. pp. 35-44.
- 이연숙, 신화경, 이선미, 윤영선.(1992). 실증적 관점에서 본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3권 1호. pp. 21-33.
- 이연숙.(1993). 한국형 노인주택 연구. 서울 : 경춘사.
- 이연숙, 이숙영, 박정아, 변해령.(1999). 노년기 상황에 따른 노인주거선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19권 2호. pp. 147-158.
- 이연숙.(2003). 한국인의 삶과 미래주택.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연숙.(2005). 오고있는 미래 반응하는 세계주택.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연숙, 이성미(편집).(2006). 고령친화 혁신디자인. 서울 : Designet.
- 이연숙, 이성미, 김민수, 이유진, 이선민.(2007a). 노인주택의 개념과 유형화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7권 1호. pp. 81-94.
- 이연숙, 이소영, 김미선, 이정화, 박윤경.(2007b). 국내 노인주거환경계획 분야 연구의 흐름 분석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7권 2호. pp. 77-86.
- 전명숙, 강순주.(1995). 서울시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노인주거환경. 한국주거학회지. 제6권 1호. pp.51-66.
- 지은영, 고정자.(1997). 연령계층별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2호. pp. 297-308.
- 최정신, 김대년, 조명희, 권오정.(2000). 치매노인을 위한 스웨덴 그룹홈의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5호. pp. 153-166.
- 홍형욱, 유병선, 전경화.(2004). 노인계획주거 대안선택 집단에 따른 특성비교. 한국주거학회. 제15권 1호. pp. 129-140.
- Calkins, M.(1995). From aging in place to aging in institutions: Exploring advances in environments for aging. The Gerontology. Vol. 35. pp.123-132.
- Davis, M. A., Moritz, D. J., Neuhaus, J. M., Barclay, J. D., Gee, L.(1997). Living arrangements,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s, and survival among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87. No.3. pp.371 - 377.
- Karen A. Franck, Sherry Ahrentzen.(Eds).(1989). New households, new housing.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Frank, J. Beth.(2002). The paradox of aging in place in assisted living. Westport, Conn. : Bergin & Garvey.
- Golant, S. M.(1992). Housing America's elderly : many possibilities few choices. Newbury Park, Calif. : Sage Publications.

25. Harris, D. K.(1988). Dictionary of gerontology.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ing Group.
26. Houben, P. P. J.(2001). Changing housing for elderly people and co-ordination issues in Europe. Journal of Housing Studies. Vol. 16. No. 5. pp. 651-673.
27. Huber, B.(2003).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5. No. 177. pp.433-439.
28. Kasper, J., Pearson, J. L.(1995). Living arrangements, social integration and personal control: correlates of live satisfaction among older people. Journal of Mental Health Aging. Vol. 1. pp. 21 - 34.
29. Lawton, M. P.(1980). Housing the elderly residential quality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Research on Aging, Vol. 2, no. 3. pp. 309-328.
30. Michael, Y. L., Berkman, L. F., Colditz, G. A., Kawachi, I.(2001). Living arrangements, social integration and change in functional health statu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 153, No. 2. pp. 123-131.
31. Moen, P., Dempster-Mc-Clain, D., Williams, R.(1989). Social integration and longevity: an event history analysis of women's roles and resili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pp. 635-647.
32. Pringle, B. M. 1978. Housing living arrangement for the elderly, Some ideas from Northern Europe. Housing and Society. Vol. 5. pp. 310-322.
33. Lawrence, R. J.(2000). Sustaining human settlement: a holistic framework for the new millenium in Proceedings of World congress on environmental design for the new millennium, 9-21 November 2000, Seoul, Korea.
34. Schafer, R.(2000). Housing America's Senior. Boston: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35. Vardy, D. P.(1984). Determinants of interest in senior citizen housing among the community resident elderly. The Gerontologist, Vol. 24, No. 4. pp. 392-395.
36. Ware, N. C., Hopper, K., Tugenberg, T., Dockey, B., Fisher, D.(2007). Connectedness and citizenship: redefining social integration. Journal of Psychiatric Services. Vol. 58, No. 4. pp. 469-474.
37. Zunzunegui, M. V., Alvarado, B. E., Ser, T., Otero, A.(2003). Social networks,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engagement determine cognitive decline in community dwelling spanish older adults. The Journal of Gerontology. Vol. 53B, No. 2. pp. 90-100.
38. 통계청: <http://www.nso.go.kr>
3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40. National shared housing resource center: <http://www.nationalsharedhousing.org>
41.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integration](http://en.wikipedia.org/wiki/Social_integration)